

국별리포트

몽골의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9. 2. 5.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10
IV. 국제신인도	12
V. 종합의견	14

몽 골

I. 일반개황

면적	1,567천 km ²	G D P	47억 달러(2008년)
인구	2.63백만 명(2007년)	1 인 당 GDP	1,779달러(2008년)
정치체제	민주공화제	통화단위	Tugrik(Tug)
대외정책	친서방 실리외교	환율(달러당)	1,165.83 (2008년)

- 몽골은 북쪽으로는 러시아, 남쪽으로는 중국과 접경하고 있는 아시아 내륙 국가로, 몽골족(95%)과 카자흐족(5%)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종교는 라마교임.
- 1921년 중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1924년 공산정권을 수립, 1당 체제를 유지하다가 1989년 정치개혁을 통해 민주공화제로 변화되었으며, 1992년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였음.
- 전 국토의 40%가 사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금, 석탄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편임. 농업, 광업에 의해 경제성장이 크게 좌우되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선진국들의 대외원조에 의존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지표

단위 :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e
경제성장률	10.6	7.3	8.6	9.9	9.0
재정수지/GDP	-1.8	2.6	3.3	-0.4	-1.5
소비자물가상승률	11.0	9.5	6.0	15.1	29

자료: IMF, EIU, World Bank

□ 2008년 주요 수출국인 중국의 경제성장, 주요 수출품 가격상승에 힘입어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전년대비 다소 둔화

- 몽골은 1990~91년 코메콘 해체 후 소련 등으로부터의 지원 중단으로 곤란을 겪었으나, 조세, 금융 부문 등 경제개혁을 단행하고 외부 원조를 받아 인프라를 건설하는 등 경제기반을 닦았음. 이에 기반하여 2004년부터 본격적인 경제성장을 시작, 2005~07년 연평균 8.6%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였음.
- 2008년에는 상반기 세계적인 경기호황과 더불어 정부의 확대 재정정책, 주요 수출국인 중국의 경제성장, 동, 금 등 주요 수출품목의 국제 가격 상승으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였으나, 하반기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 원자재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어 2008년 전체 경제 성장률은 전년대비 낮은 9.0%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
- 2009년에는 미국 등 선진국의 수요감소로 당분간 원자재 가격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세계 경기침체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7.5%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

□ 석유, 식품 등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높은 물가상승 압력 존재

- 석유, 식품 등 수입품 가격 상승, 정부의 확대재정정책, 소비 증가로 2008. 8월 물가상승률은 34.2%에 달했으나, 2008. 9월부터 석유 및 식품의 국제가격이 하락하여 물가상승세가 다소 완화되었으며 2008년 전체적으로는 29%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
- 특히, 소비자물가지수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식품 가격의 경우 상승률이 2008. 6월 80.2%에 달하였으며, 몽골의 주요 식품 수입국인 중국의 위안화대비 투그릭화 가치하락도 수입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

□ 2008년 확대재정정책 시행에 따른 지출 증가로 재정적자폭 확대

- 광물가격 상승에 따른 초과이윤세(Windfall Tax) 증가, 경제성장 등으로 2008년 정부 재정수입이 전년대비 29% 증가하였으나, 재정지출 측면에서 공공기관 임금 상승, 실업문제 해결 등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지출이 크게 증가하여 재정적자폭 확대
- 2009년에는 원자재 가격 하락세 지속에 따른 몽골정부의 초과이윤세 수입 감소, 법인세 감소, 국영기업인 Erdenet 광산으로부터의 배당금 감소 등으로 정부 재정수입이 크게 줄어들어 재정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취약한 경제구조로 국제 원자재가격 등 외부요인에 민감

- 농업과 광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0.6%와 27.4%로(2007년 기준) 흑한 등 자연재해와 국제 원자재가격 등 외부 요인의 변동에 의하여 성장이 좌우되는 취약한 경제구조
- 농업의 경우 열악한 기후여건, 소규모 경작, 경작지 부족으로 농업발전에 한계가 있음. 현재 국내 곡물 수요의 1/3 정도만 국내생산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수입 및 대외 원조에 의존하고 있음.

- 동, 금 등 광물자원에 편중된 수출구조로 국제 원자재가격 등락에 따라 상품수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아 유가 인상에도 취약
 - 동, 금, 석탄, 캐시미어 등 1차산품을 수출하고 석유, 기계설비, 전자부품, 자동차 등 에너지와 자본재를 수입하는 취약한 경제구조
 - 주요 수출품인 동과 금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기준 각각 41.6%, 12.0%로 수출이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에 크게 좌우
 - 국제 광물가격 상승으로 2006년 소폭 흑자를 기록하였던 상품수지는 세계적 고유가에 따른 석유 수입 급증으로 2007년 다시 적자로 반전되었으며, 2008년에는 경상수지 또한 적자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외부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

□ 산업기반 부족과 경제구조 취약으로 성장에 한계

- 광업부문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산업구조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으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산업 다변화 필요
-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농업 부문 활성화, 제조업 기반 확대, 서비스 산업 육성 등 산업 다변화를 통한 성장 동력 확충이 시급하나, 외국인 투자는 자원개발에 집중되고 있어 광업부문 의존도만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

□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높은 교역 의존도

- 수출이 중국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중국 정부의 정책이나 경기 변화가 수출의 주요 변수로 작용(2007년 기준 몽골의 對중국 수출비중은 74.8%)
 - 최근 중국의 고도성장에 따른 석탄, 동 등 광물자원의 對중국 수출 증가로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 심화
- 반면, 석유 등 에너지 및 식량(밀)은 주로 러시아에 의존(2007년 기준 몽골의 對러시아 수입비중은 35.2%)

- 최근 고유가, 밀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對러 수입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음.

□ 도로망 등 인프라 구축 미비로 물자의 효율적 이동에 제약

- 광대한 영토(한반도의 7배)에도 불구하고 물류의 대부분을 횡단 철도(Ulaanbaatar Railway), 동서 횡단 도로에 의존하고 있는 등 열악한 인프라로 물자 운송에 제약
- 대외 원조자금을 이용한 간선도로의 건설 및 개선, 국영 항공사 MIAT의 민영화 등 전반적인 운송 체계의 개선이 진행중임.

□ 외부 원조에 의존적인 경제

- IMF, ADB 등 국제기구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원조자금에 의한 개혁 프로그램 시행, 대외원조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주로 외부원조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보이고 있음.
- 2001~07년 중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대 몽골 ODA 지원규모(총 지출액 기준)는 17.1억 달러로 연평균 2.4억 달러 수준(2007년말 외환보유고 대비 약 20.5%에 해당)
- 미국 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으로부터 285백만 달러의 원조자금을 받을 예정이며, 2009. 1월, 일본국제협력기구(JICA)로부터 울란바토르 고가도로 설계 프로젝트 지원 자금 등 22백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기로 하는 등 미국과 일본의 원조를 많이 받고 있음.
- 재정적자폭 확대로 대외원조 의존도 증가
 -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이 초과이윤세(2007년 정부 재정수입의 7.8% 차지) 감소 등 정부 재정수입의 감소로 이어져 2009년 몽골의 재정수지 적자폭은 GDP의 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몽골정부는 2009. 1월 IMF, 중국에 각각 60~70백만 달러, 30억 달러의 원조자금을 요청하는 등 대외원조 의존도가 증가

나. 성장 잠재력

□ 비교적 풍부한 광물자원 보유로 경제성장 동력 확보

- 동, 석탄, 금, 폴리브덴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자원 개발을 위한 외국인 투자 유입이 계속되고 있음.
-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광물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캐나다, 호주 등지로부터 투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됨에 따라, FDI 유입액은 2005년부터 크게 증가
 - 몽골의 FDI 유입액은 93백만 달러('04), 182.3백만 달러('05), 289.58백만 달러('06), 327.8백만 달러('07), 547.6백만 달러('08. 3분기)임.

다. 정책성과

□ 빈곤퇴치 및 물가안정을 목표로 확대 재정정책 실시

- 몽골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전체 인구의 35% 이상이 극빈층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1990년 이후 시장 경제로의 전환은 소득격차를 확대시키고 도시 이주를 촉진함에 따라 일자리, 주택 등의 부족 야기
- 정부는 2005~06년 광업부문 세수 확대에 따른 흑자재정과 꾸준히 유입되는 대외 원조를 기반으로 2005년부터 공공기관 임금인상, 빈곤층에 대한 사업 실시 등 확대재정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광업부문 발달에 따른 빈부격차 심화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빈곤층의 생활여건 악화 등 여전히 문제점 존재

□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인상을 단행하였으나 효과는 미미

- 몽골 중앙은행(Bank of Mongolia; BOM)은 물가상승 압력 완화를 위해 2008년 중 두 차례(3월, 9월) 금리인상 조치를 단행하였으나 물가상승률 완화에 별 영향을 끼치지 못했으며,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침체 위협으로 추가적인 금리인상조치는 힘들 것으로 보임.

□ 광업부문 보호주의 정책 실시로 외국인투자 위축 우려

- 국내 자원민족주의 여론을 의식한 몽골 정부의 잦은 광업부문 투자정책 변화로 외국인 투자자들 혼란 가중
 - 최근 광업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우대 및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통제권 약화 등으로 자원민족주의 여론이 형성됨에 따라 2006년 몽골 정부는 초과이윤세(Windfall Tax) 도입 및 채굴료율 인상(2.5% → 5%) 등 조치 시행
 - 2007년말 임명된 S.Bayar 정부는 광업부문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하여 전략광산에 대한 정부 지분 확대, 2007. 4월에 정부가 동의한 오유틀고이 투자협정안의 재검토 계획을 발표하고 전략광산에 대한 몽골정부의 지분 확대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등 갑작스런 정책 변화로 캐나다 Ivanhoe사 등 외국인 투자자들의 반발 야기
 - 2008. 12월 기존 광물법에 근거한 '오유틀고이, 타반톨고이 광산의 투자협정 체결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다시 외국인 투자자와 협상을 재개하였으나, 몽골정부의 전략광산에 대한 지분확대 입장 고수로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
- 지금까지는 세계적인 원자재난으로 광업부문에 대한 FDI 유입이 지속되었으나 잦은 정책변화로 외국인투자가 위축될 수도 있음.

□ 민간부문 대출의 급격한 증가로 금융부문 리스크 증대

- 최근 경기 호조 등으로 민간 부문에 대한 대출이 급격히 증가(2007에 전년 대비 88% 증가)한 반면, 취약한 금융 감독 기능으로 금융기관 대출채권의 잠재적 부실위험이 확대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e
경 상 수 지	-25	-5	109	172	-405
경상수지/GDP	-1.5	-0.3	3.4	4.4	-8.5
상 품 수 지	-29	-29	189	-11	-839
수 출	872	1,069	1,545	1,952	2,163
수 입	901	1,097	1,357	1,964	3,002
외 환 보 유 액	236	430	926	1,196	859 ^주
총 외 채 잔 액	1,518	1,327	1,444	1,535	1,611
총외채잔액/GDP	91.0	69.0	45.3	39.4	33.8
D . S . R .	2.9	2.6	2.2	2.0	2.1

주: 2008. 3분기 현재

자료: IMF, EIU, World Bank, BOM

□ 식품, 석유 등 수입 증가로 인한 상품수지 적자 심화로 2008년 경상수지 적자 전환

- 몽골은 석유, 식품 등 수입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경상수지도 1998년부터 2005년까지 계속 적자상태였음. 그러나, 대외원조 유입액 증가 및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광물 수출 증가에 힘입어 2006년, 2007년에는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하였음.
- 2008년에는 동, 금, 캐시미어 등 주요 수출품의 가격 상승에 따라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① 주요 수입품인 석유 및 식품 가격 상승, ② 경기 활황에 따른 수입 수요 증가, ③ 광업투자 확대에 따른 관련 설비수입 증가로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상품수지 적자 확대로 경상수지는 적자로 전환되었음.
- 2009년에도 주요 수출품인 동 가격 하락 및 주요 수출국인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한 수출감소로 상품수지 적자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 경상수지 적자에 따른 외환보유액 감소

- 몽골의 외환보유액은 2006~07년의 경상수지 흑자, 지속적인 FDI 유입으로 2006년 큰 폭으로 증가(전년대비 115% 증가) 하였으며, 2007년말에는 외환보유액이 12억 달러에 달했음.
- 2008년에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됨에 따라 외환보유고가 감소하고 있으며, 2008. 3분기 현재 외환보유액은 859.2백만 달러 수준(3개월치 수입분)임.

Ⅲ. 정치·사회 동향

1. 정치 안정

□ 2008. 9월 연립내각 수립으로 총선 이후 정국불안은 수습되었으나, 절대 다수당 부재로 정국불안 요인 여전히 존재

- 2008. 6. 29일 실시된 총선에서 몽골인민혁명당(MPRP)이 승리하였으나 국회의 총 76석 중 44석 획득에 그쳐, 민주당(DP)과 연립내각을 구성함.
- 그러나, 민주당(총 의석 중 26석 차지)이 선거부정 의혹을 이유로 국회에 불참하거나 연립내각에서 탈퇴할 경우 법안통과 등 국정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2. 사회 안정

□ 인종간·종교간 갈등 없으나 소득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갈등 존재

- 종교 갈등이나 인종간 갈등이 없어 전반적인 사회안정을 이루고 있으나 기득권의 부정부패, 사회계층간 소득 불균형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광업부문 위주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음.

3. 소요사태

□ 빈부격차 확대,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극빈층의 시위 등 소요사태 발생

- 몽골정부의 빈곤퇴치 정책 실패로 고조된 국민 불만이 2006. 4월 국민적 시위로 표출되는 등 정부의 국정 능력에 대한 불신 팽배
- 2008. 6월 총선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발생한 폭력사태도 근본적 원인은 빈부격차 확대 등에 따른 집권당에 대한 불만임.

- 최근 고유가로 인한 공공요금 인상, 주택가격 상승 등 물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사회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시위 등 소요사태의 재발 가능성이 상존

4. 국제 관계

□ 실용주의 외교노선으로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등과 우호관계 유지

- 냉전 종식 이후 이념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외교정책으로 주요 교역국인 러시아,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원조국과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황태도

□ 외채규모는 큰 편이나 장기채무가 대부분

- 지속적인 외채 증가로 2004년에는 GDP대비 총외채잔액이 91%에 달했으나, 이후 경제성장으로 GDP대비 총외채잔액이 계속 감소하였음. 2008년말 몽골의 총외채잔액은 16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GDP의 33.8%에 해당되어 외채 규모는 여전히 큰 편임.
- 그러나, 총외채 중 장기채무가 대부분(2006년 기준 94.4%)으로 이중 99%가 양허성차관이며, 주요 수출품인 동, 금 등 원자재상승에 따른 광업부문 수출 호조에 힘입어 DSR도 지속적으로 감소
 - 과거 채무 리스케줄링 경험은 없음.

□ 경상수지 적자에 따른 외환보유액 감소로 외채상환능력 악화 우려

- 2008년 경상수지 적자전환으로 외환보유액이 2007년말 12억 달러에서 2008년 3분기 현재 8억 달러로 큰 폭으로 감소(33%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외채상환능력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

2. 국제시장평가

□ 주요기관별 신용도평가

- Moody's : B1('05. 10)
- S&P : B+('06.12) → BB-('07. 12)
- Fitch : B+('05. 7) → B('09. 1)
- I.C.R.G. : 83/140('08. 1) → 70/140('08. 11)
- Euromoney : 117/185('07. 9) → 86/186('08. 9)
- I.I. : 114/174('07. 9) → 97/177('08. 9)

- OECD등급 : 7등급('07. 3) → 6등급('08. 4)

□ 정부재정 악화 우려로 주요 신용평가회사들이 국가 신용등급전망을 '부정적'으로 조정하는 등 대외신인도 하락 지속 가능성

- S&P는 2008. 12. 19일 동 가격 하락으로 인한 재정적자 및 부채 상환능력 악화 우려로 몽골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으로 조정(신용등급은 BB- 유지)
- Fitch는 2008. 12. 11일 높은 인플레이션, 정부 재정악화 우려로 몽골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으로 조정하였으며, 2009. 1. 19일 금융부문의 취약성과 대외원조 필요성 증가를 고려하여 국가 신용등급을 'B+'에서 B'로 한 단계 하향 조정
 - Fitch의 등급 하향조정으로 현재 몽골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억 달러 규모의 첫 외화 채권발행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에너지·광물자원·농업 등 분야 경제협력 추진

- 2006. 5월 한·몽골 정부간 신재생 에너지분야 협력 MOU 체결, 9월 더르너고비(Dornogovi) 유연탄광 관련 MOU 체결, 2008. 4월 몽골 축산품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 협의회사록 체결, 5월 동몽골 할흐골 지역 농업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협의회사록 체결 등 양국 정부와 유관기관간 에너지·광물자원·농업 개발분야 경제협력 추진

V. 종합의견

- 몽골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광업부문 수출 증대, FDI 유입 증가에 힘입어 2004~07년 연평균 9.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여 거시경제지표가 전반적으로 호전되었으나, 2008년 하반기부터 세계 경기침체로 인한 광물 등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경제성장률 둔화와 함께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당분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특히, 광물수출 감소로 인한 경상수지 악화는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원조가 순조롭게 유입되지 않을 경우 외채원리금 상환능력의 악화를 초래할 수도 있음.
- 정치적으로는 2008. 9월 몽골인민혁명당과 민주당의 연립내각 성립으로 6월 총선 이후 정국불안은 수습되었으나, 연립내각의 한 축인 민주당의 선거 부정의혹 제기로 여전히 국정운영의 차질 가능성이 상존하는 한편, 소득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갈등과 극빈층의 시위 등 사회불안 우려도 여전히 있음.

전문연구원 채화정(☎ 02-3779-6660)

E-mail : hwajeong@koreaexim.go.kr